여수사암련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동참

대해(大海)·자비 만났으니 '여수 코리아' 파이팅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기원 '거북선 대축제' 현장

해마다 열리는 거북선 축제(진남제)이지만 올해는 그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세계박람회 기구(BIE) 실사단에 맞추어서 열렸기 때문이다. 여수시민들이 카르맹 실뱅 집행위원장으로 하는 실사단에 보내는 환영의 열기는 뜨거웠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전란이었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곳이 전라좌도 수군절도영 본영이 있었던 지금의 여수시였다. 이 역할로 전라도가 보존되었고, 조선은 국력을 회복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지리적으로 호남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충무공 이순신이 사헌부 지평현덕승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다. "호남은 나라의 울타리입니다. 만일 호남이 없으면 그대로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조선 때 왜구의 남서해안 노략과 침략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해도 1000회 이상이라고 한다. 전쟁에 참여한 수군과 백성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진남제'가 열리고 있는데 올해는 그 명칭을 '거북선 축제'로 바꾸었다.

여수사암연합회에서도 거북선축제에 동참했다. 4월 11일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되는 '통제영 길놀이'에 석천사, 흥국사, 향일암, 가림정사, 청량사, 쌍용사, 해광사, 달마사, 한산사 등의 사찰들이 참여했다. '통제영 길놀이'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활약한 그 역사를 재연한 것으로 거북선 축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의승수군행렬에는 각 사찰의 스님 20명과 승군 복장을 한 남여 100명이 참가하였다. 100명의 승병들이 칼을 비롯한 무기 대신 부처님의 법을 상징하는 연등을 드는 것은 전쟁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이며 전쟁을 평화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이다. 의승수군행렬은 스님들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불교의 자비사상을 몸소 실천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으며, 또 400년 전의 종교와 문화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기에 의미가 깊다.

대형 연꽃등을 앞세우고 각 사찰의 신도들 400여명도 연등행렬에 참여하였다. 특히 석천사 불자들로 구성된 바라춤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거북등, 연꽃등, 수박등, 잉어등에 환하게 불을 밝힌 행렬이 어둠을 가르고서 지나가자 사람들의 환영 또한 열렬했다.

다음 날 12일 오후 2시 해양공원에서는 '수륙고혼천도대재'가 열렸다. 이번 수륙대재는 전과는 좀 다른 형식을 취했다. 순수불교행사가 아닌 실사단과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초대했다. 많은 사람들이 수륙재를 보기 위하여 몰려들었고, 여수사암연합회에서는 초록색 모자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실사단들이 아직도 어제의 감격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통제영 길놀이에 참가해준 불교계의 덕분이 아닌가 싶다"며 "평화를 상징하는 수륙재가 이렇게 열리고 있음에 감사드린다. 이러한 불교계의 노력으로 2012여수 세계박람회는 꼭 유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대 중앙에는 흥국사 대웅전의 관세음보살탱화를 그대로 그린 괘불탱화가 걸렸다. 여수사암연합회회장인 명선 스님이 무주고혼들을 위해서 또 여수세계박람회유치를 위해서 촛불을 밝혔다.

올해는 영가들의 위패 대신 노란색 리본에 영가를 적거나 자신의 소원을 적어서 행사장 부근에 달았다. 바람에 나부끼는 노란색 리본은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그리고 컵등 만들기와 탁본 체험행사도 열리고 있어 아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카르맹 실뱅 집행위원장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는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된다면 10조 원 이상의 생산과 8만8000여 명의 고용을 유발하는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여수 코리아의 낭보가 전해지기를 여수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글 · 사진=문윤정(수필가 · 본지 논설위원)

스님 20명 '의승수군행렬' 참가 눈길
400여 불자 참가한 연등행렬 봉축 방불
'통제영 길놀이' 공연에 실사단 감동

수륙고혼천도재 모습.

의승수군 행렬에 동참한 스님과 불자들.

EXPO 2012 YEOSU KOREA

수륙고혼천도재란

지상의 땅이며 물속에서 떠돌며 기아와 갈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외로운 고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발원하는 재이다.

거북선축제에서 매년 행해지는 수륙재(水陸齋)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의승수군 300여명과 함께 전투하다 전사한 영혼과 원혼들을 달래고 삼악도에서 벗어나 좋은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를 발원하는 천혼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고흥, 남해, 구례, 곡성, 순천, 여수, 광주 등 각지에서 스님 30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때 승군대장은 화엄사의 자운 스님이었다. 승군을 결성한 것이 1593년 4월이었고, 임란이 끝난 뒤에도 300년간 지속되었다.

여수사암연합회 회장인 명선 스님은 "전쟁에 참여한 승군들의 원혼을 위해 선조가 보낸 쌀 600석으로 흥국사, 석천사, 은적암, 용문사 향일암 등에서 300년간 수륙재를 열었었다"며 "일제 때 없어졌는데, 24년 전 내가 흥국사로 오면서 사적기를 바탕으로 복원돼 8년 전부터는 진남제의 공식행사가 되었어요."